

2006, 한국도서관협회의 과제



윤 희 윤*

암울하던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지 보름 만에 '조선도서관협회'를 창립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55년 4월 16일에 간관을 바꾸면서 새롭게 자리 매김하기 시작한 한국도서관협회, 이미 오래 전에 고인이 된 선구자들을 비롯하여 현재의 집행부 및 사무국 직원에 이르기까지 형언하기 힘든 인고와 열정이 결집·누적되어 지난 해에 이순(耳順)을 맞이한 바 있다.

그 동안 한국도서관협회는 척박한 토양과 열악한 인적 및 재정적 기반 위에서도 사서직의 권익을 대변·옹호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도서관의 성장·발전을 견인하는 전문직 단체로서, 정부(행정기관)의 도서관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비판·매질하는 견제자로서 때로는 대안 제시자로서,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내지 실무적 지평을 확장하고 각종 표준도구와 준용지침을 생산하는 주역으로서, 그리고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그것의 착근과 대중화를 선도하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에 진력하여 왔다. 물론 그 과정에 도서관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한국도서관협회를 질타하거나 매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개인적 이해와 관련된 미시적 사안에서부터 도서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자세(저작권, 명칭변경, 위탁 운영, 주 5일 근무제, 일요 휴관제 등), 협회의 운영방식과 회장 선출방식,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심지어 '한국도서관협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하는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어 왔다. 모두가 성장을 위한 아우성이며 발전을 위한 진통의 일환이므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6년의 한국도서관협회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내년 이후를 위하여 많은 현안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되, 몇 가지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천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면 도서관계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더욱 고착시킬 수밖에 없는 반면에 전향적인 사고로 실천하면 신세기 한국 도서관의 발전과 정보문화를 선도하는 주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무수한 과제 중에서 다음의 몇 가지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한다.

우선 한국도서관협회는 금년 8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지구촌의 지식정보축제, 즉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의 성공적인 개최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대회는 물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한국도서관협회장이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에서 5천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구촌의 축제 마당에 국내의 도서관인과 연구자들이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렵다. 이를 위하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우리협회 기획위원장, yhy@daegu.ac.kr

여 한국도서관협회는 조직위원회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도서관협회는 WLIC 서울대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중장기 비전인 가칭 'KLA Vision 21'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WLIC 서울대회를 계기로 세계 도서관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될 것이고 그 이후의 행보와 발전에 대한 기대도 배증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서관협회의 역량강화와 역할증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내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조직과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또 다른 당위성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정체성까지 거론할 정도로 불신하거나 이반심리를 드러내는 회원들에게 자기성찰을 통한 새로운 비전의 제시와 공약은 최소한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금년의 한국도서관협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및 제도의 불합리성을 홍보하고 개선'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산적한 현안 중에서 특히 이해집단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전면개정안)의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위탁문제, 공공도서관장의 전문직 보임문제, 저작권법과 도서관 보상금 제도 등은 민주적인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한국도서관협회는 '모든 도서관인에게 참여의지와 귀속감을 고취시키는 공간과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회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폐쇄형 구조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대조류를 수용하여 협회장의 직선제 도입, 이사회 구성범위의 확대, 전문위원회의 정비와 재구성 등의 제도 개선안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한국도서관협회는 '사사로운 감정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타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이순을 넘어 '마음이 하고자하는 대로 좇아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중심(從心)을 향하고 있다. 거기에 안착하려면 금년에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과제 of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도서관계의 관심과 포용력이다. 회원도 아니면서 협회를 비난하는 어불성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협회의 정체성을 운운하는 넌센스, 논리보다 감정을 앞세우고 중시하는 사고와 행위는 종식되어야 한다. 세간에 회자되는 경구 중에서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서관협회의 주인인 모든 회원의 관심과 참여, 사랑과 비판이 넘칠 때 도서관계를 위한 담장은 견고해 질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24)